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보고서 발간

지난 4월 14일,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보고서가 발간되어 회원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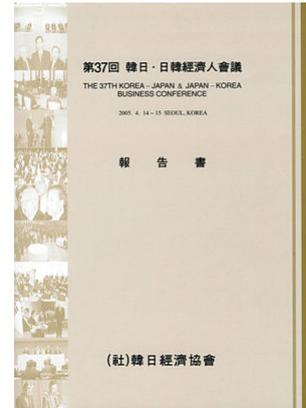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아래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다운로드 :

<http://kjcf1992.webhard.co.kr> 접속

아이디 guest, 패스워드 1111

제37회 경제인회의 폴더에서 다운로드



야마가타현 서울사무소 개설



축사를 하고 있는 조석래 회장

일본 동북지방에 위치한 야마가타현의 서울 사무소 개설기념 리셉션이 지난 5월 19일(목)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이토 히로시(齋藤 弘) 야마가타현 지사, 아사노 시로오(淺野 史郎) 미야기현 지사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 우리협회 조석래 회장과 허남정 전무 이사가 축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조석래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특히 경제면에서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때이니 만큼 서울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교류의 촉진은 물론 경제협력도 눈부신 성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야마가타현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여행상품 홍보, 현 소재기업의 서포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야마가타현 서울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45 미도파 광화문빌딩 114호 Tel. 02-725-9074 Fax. 02-725-3979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확충

최근 한일관계는 정치·사회적인 갈등으로 소원해지고 있고, 양국간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FTA 문제 등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서로 시장을 열고 무역과 경제교류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협회는 그 동안 쌓아 온 한일간 경험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명실상부한 민간경협 채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아래 5명의 재계 인사를 새롭게 우리협회 부회장으로 추대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회의 기능을 가일층 보강하고 보다 활발한 한일경협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나다 順>



김 윤 (주)삼양사 회장

1953년생
1979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79 (주)반도상사 근무
1985 (주)삼양사 입사
1989 (주)삼양사 이사
1996 (주)삼양사 대표이사 사장
2001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2004 (주)삼양사 대표이사 회장



류 진 (주)풍산 회장

1958년생
1983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1982 풍산금속공업(주) 입사
1997 (주)풍산 대표이사 사장
2000 (주)풍산 대표이사 회장
2001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2001 한미협회 부회장
200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1945년생
1967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67 금호타이어(주) 입사
1980 금호실업(주) 대표이사 사장
1990 (주)금호 대표이사 사장
2001 아시아나항공(주) 대표이사 부회장
2002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003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손경식 CJ(주) 회장

1939년생
196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61 한일은행 근무
1973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이사
1991 동사 대표이사 부회장
1993 제일제당(주) 대표이사 부회장
1995 제일제당그룹(현CJ) 회장
2002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1955년생
1970 일본 靑山학원대학 경제학부 졸업
1988 일본롯데상사(주) 입사
1996 호남석유화학(주) 부사장
1997 롯데그룹 부회장
2000 (주)롯데닷컴 대표이사
2001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2004 (주)롯데제과·호남석유화학(주) 대표이사 부회장

日本은 지금...

Brand Japan 2005

<브랜드 가치는 "貯金"할 수 있다>

일본 최대 규모의 브랜드 조사 <브랜드 재팬>은 올해로 5회째. 소니와 스타지오지브리(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등이 안정 상위로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한편, 제품 브랜드를 세련되게 하여 금상승한 기업도 눈에 띈다.

<업적부진에도 소니 1위>

日經BP 컨설팅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브랜드 조사 <브랜드 재팬>. 제 5회째가 된 올해 금번 종합 1위에 뽑힌 것은 <소니>이다. 소니는 2002년~2003년 연속해서 종합 1위를 자랑했지만 2004년은 2위로 전락했다. 금회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작년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해 톱에 복귀했다.

상위에는 조사의 "단골"이 된 브랜드가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상위에 랭크하고 있는 2위의 스타지오지브리(작년 5위)와 3위의 디즈니(작년 1위), 4위의 토요타 자동차(작년 3위)가 두드러진다. 평가 항목별로도 <공감한다>로 "스타지오지브리"가, <다른 것에는 없는 매력이 있다>로 "디즈니"가 3년 연속 톱이 되었다.

브랜드 재팬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루노우치(丸内) 브랜드 포럼 대표인 片平 秀貴은 “한번 확립한 브랜드는 그 大前提가 무너지는 불상사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간단하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들 탄탄한 브랜드는 일본에 있어 기본적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고 생각해도 좋다.

<소니 1위는 왜?>

그 중에서도 종합력에서 1위의 "소니"는 因子別에서도 <Out Standing(탁월)>으로 1위, <Inovative(혁신)>에서 10위로 높은 평가를 얻었다. 평가 항목에서도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로 3년 연속 1위. <멋지다.Stylish(유행)>, <Status(사회적 지위)가 높다> 등의 항목에서도 2위에 랭크했다.

그러나 이 브랜드力에의 높은 평가는 기업으로서의 소니가 현재 놓여져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갭이 있다.

업적을 보면 本業인 일렉트로닉스 분야가 부진. 소비자로부터 높이 평가된 <탁월>, <혁신>의 항목도 薄型TV와 디지털 음악플레이어 등 첨단 분야에서 타사에 뒤졌다. 이 상황 하에서의 브랜드 종합력 1위에의 복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업 브랜드로서의 소니에 대한 평가는 상승했지만, 역으로 제품 등 개별 브랜드의 평가는 모두 하락했다. 특히 컴퓨터의 <VAIO(바이오)>를 필두로 디지털 비디오키메라의 <핸드캠>과 휴대 음악플레이어인 <워크맨>, TV의 <WEGA(메가)> 등의 轉落이 심하다. 모두 소니가 격렬한 싸움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들이다.

평가 항목별에서 보면, 소니 제품을 <최근 사용하고 있다>는 회답은 3년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순위도 작년 26위에서 64위로 대폭 내려갔다. 평가는 높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줄었다. 즉 <소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변함없이 높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을 소니가 내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片平 대표는 <개별의 제품에서 쌓아온 소니 브랜드에의 평가라고 하는 "貯金"을 모두 소비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본다.

소니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Friendly(친밀감)>의 因子가 과거 3년 동안 가장 높았던 점이다. 속성별로 보면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친밀감>의 평가가 급상승했다. 더욱이 <혁신>의 인자에서 10위에는 들어갔지만 실은 평가를 끌어 올린 것은 여성. 소니의 주요 고객층인 남성만을 보면, 50대를 제외하고 3년 연속해서 <혁신>에의 평가가 내려가고 있다.

친해지기 쉬운 브랜드로서 평가 되어지는 것은 모든 소비자에 사랑 받는 국민적 브랜드를 목표로 하는 것이면 물론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소니를 지지해 온 소비자의 대다수는 소니 제품에 <탁월>, <혁신> 등 키워드를 반복해 지명도로 구입하는 사람들. 그것이야 말로 <소니 팬>이다. 친해지기 쉽게 된 소니를 개성이 약아졌다고 받아들일지 모른다.

<윤사마 지명도 구입의 功罪>

<윤사마의 비디오카메라>, <소니의 iPod>. 일시적인 이런 "指名度 購入"이 가전 양판점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윤사마>란 한국의 인기 배우인 "배용준"으로 2004년 8월부터 핸디캠의 CM 캐릭터를 맡았다. <iPod>는 미국 애플 컴퓨터의 디지털 휴대 음악플레이어이다. 이러한 구매 방법을 하는 유저(User)는 특히 소니 브랜드에의 집착(구매됨)이 강한 것은 아니다. 다른 메이커에 마음에 드는 기기가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타제 제품을 선택하는 "변덕스러운 유저"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을 소니 자신이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 토틀런트를 전면에 내세운 선

전을 중시한 제품은 핸디캠 뿐만은 아니다. HDD 내장형 DVD 레코더의 <스고録>에서는 인기 배우인 田村 正和를 기용했다. 고기능 기종도 일부 있지만, 주력은 처음으로 DVD 레코더를 구입하는 층을 겨냥한 보급기기이다.

소니 마케팅의 渡邊 선전기획부 담당부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DVD와 HDD의 쌍방을 탑재한 녹음기에서 소니는 후발. 복잡한 기술이지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는 데에는 인기 배우의 기용이 최적이었다.> 이러한 看破가 적중하여 타사보다도 저가격 설정으로 지지를 얻어 대히트했다.

소니 팬의 소니 이탈과 "소니다움"을 의식하지 않는 유저의 증가, 고객층의 확대는 실적향상에 공헌하고 있지만 "소니다움"을 기대하는 종래의 고객을 잃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양갈의 날이기도 하다. 소비자에 있어 소니 제품이 복수의 선택지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업의 브랜드로서의 가치까지 희박하게 된다는 것이 될 지도 모른다.

소니에서 브랜드 전략을 담당하는 브랜드 전략 오피스의 橋谷 시니어 레지던트는 <기업 브랜드 가치는 제품 등에 사용하는 서브 브랜드를 곱셈한 결과이길 바란다.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제품력을 높이고 개별의 서브 브랜드를 재정의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貯金"이 충분하게 남아 있는 중에 <貯金=서브 브랜드의 강화>를 할 수 있을까? 답은 미래의 랭킹으로 표시 된다.

"저금"을 잔뜩 할 수 있게 해준 주력 제품의 브랜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더욱 돈을 벌게끔 하는 자세가 이번 랭킹 평가에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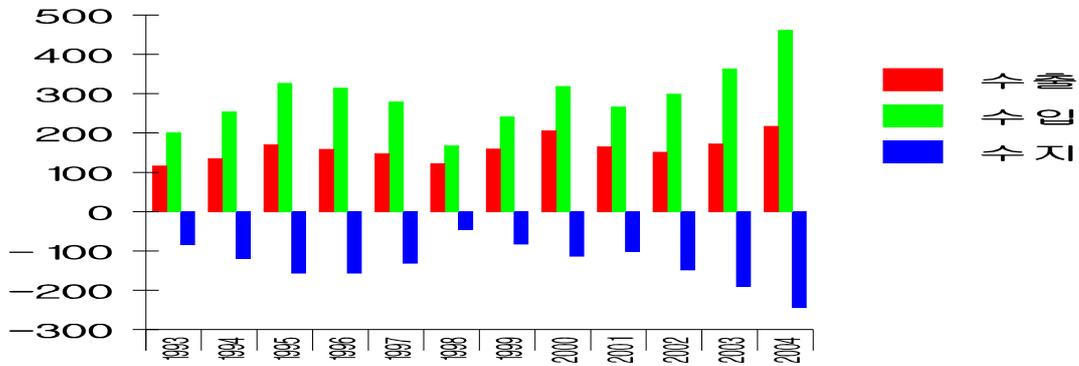
<자료출처 : 日經비즈니스 2005. 5>

 **對日 統計資料**
연도별 대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총교역액		대일수출		대일수입		무역수지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65	211		44		167		-123
66	360	70.6	66	50.0	294	76.0	-228
67	528	68.2	85	28.8	443	50.7	-358
68	724	37.1	100	17.6	624	40.9	-524
69	887	22.5	133	33.0	754	20.8	-621
70	1,043	17.6	234	75.9	809	7.3	-575
71	1,216	16.6	262	12.0	954	17.9	-692
72	1,439	18.3	408	55.7	1,031	8.1	-623
73	2,969	106.3	1,242	204.4	1,727	67.5	-485
74	4,001	34.8	1,380	11.1	2,621	51.8	-1,241
75	3,727	-6.8	1,293	-6.3	2,434	7.1	-1,141
76	4,901	31.5	1,802	39.4	3,099	27.3	-1,297
77	6,075	24.0	2,148	19.2	3,927	26.7	-1,779
78	8,608	41.7	2,627	22.3	5,981	52.3	-3,354
79	10,010	16.3	3,353	27.6	6,657	11.3	-3,304
80	8,897	-11.1	3,039	-9.4	5,858	-12.0	-2,819
81	9,818	10.4	3,444	13.3	6,374	8.8	-2,930
82	8,619	-9.1	3,314	-3.8	5,305	-16.8	-1,991
83	9,596	10.9	3,358	1.3	6,238	17.6	-2,880
84	12,242	28.1	4,602	37.1	7,640	22.5	-3,038
85	12,103	-1.1	4,543	-1.3	7,560	-1.0	-3,017
86	16,294	34.6	5,425	19.4	10,869	43.8	-5,444
87	22,094	35.6	8,437	55.5	13,657	25.7	-5,220
88	27,933	26.4	12,004	42.3	15,929	16.6	-3,925
89	30,906	10.6	13,457	12.1	17,449	9.5	-3,992
90	31,212	1.0	12,638	-6.1	18,574	6.4	-5,936
91	33,476	7.3	12,356	-2.2	21,120	13.7	-8,764
92	31,057	-7.2	11,599	-6.1	19,458	-7.9	-7,859
93	31,580	1.7	11,564	-0.3	20,016	2.9	-8,452
94	38,913	23.2	13,523	16.9	25,390	26.9	-11,867
95	49,655	27.6	17,049	26.1	32,606	28.4	-15,557
96	47,216	-4.9	15,767	-7.5	31,449	-3.6	-15,682
97	42,678	-9.7	14,771	-6.3	27,907	-11.3	-13,136
98	29,078	-31.9	12,238	-17.1	16,840	-39.7	-4,602
99	40,004	37.6	15,862	29.6	24,142	43.4	-8,280
00	52,294	30.6	20,466	29.0	31,828	31.8	-11,362
01	43,138	-17.5	16,505	-19.3	26,633	-16.3	-10,128
02	44,999	4.3	15,143	-8.3	29,856	12.1	-14,713
03	53,589	19.1	17,276	14.1	36,313	21.6	-19,037
04	67,845	26.6	21,701	25.6	46,144	27.1	-24,443
누 계	841,935		305,258		536,677		23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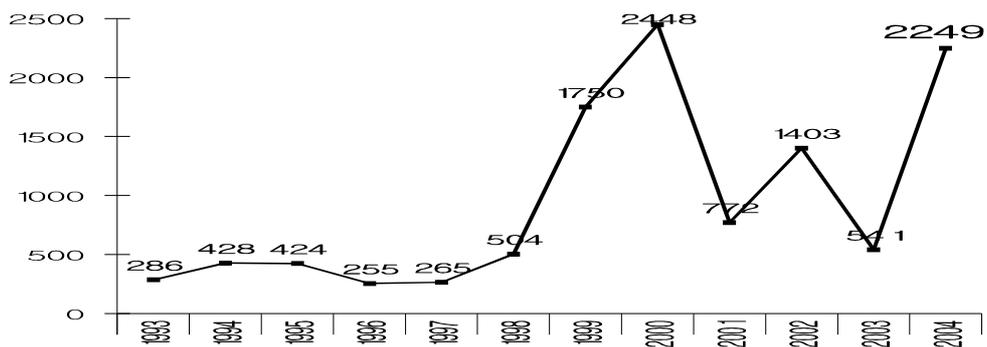
<일본과의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억불)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65~04)
수출	116	135	170	158	148	122	159	205	165	151	173	217	3,053
수입	200	254	326	314	279	168	241	318	266	299	363	461	5,367
수지	-84	-119	-156	-156	-131	-46	-82	-113	-101	-148	-190	-244	-2,314

<일본의 對韓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62~04)
건수	163	215	288	262	247	330	391	614	591	474	495	552	8,274
금액	286	428	424	255	265	504	1,750	2,448	772	1,403	541	2,249	15,509

출처) 산업자원부, 주) 투자금액은 신고기준

會員 動靜 & 短信

■ **박성용(朴晟容)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님께서 미국 현지시각 5월 22일 오전 10시 07분(한국시각 23일, 오전 02시 07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故 박성용 부회장님께서



서는 숙환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셨으나 최근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타계하셨습니다. 영결식은 5월 2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트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지난 1989년부터 우리협회 부회장으로서 한일 경제협력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故 박성용 부회장님의 업적을 기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한일우정의 해”를 맞아 제주도관광협회(회장 : 이길현(李吉鉉) 감



사와 고베(神戸)시의 고베국제관광컨벤션협회는 6월 1일 **우호친선협정에 조인**하였습니다. 협정체결을 기념하여 고베시청 1층에서 6월 10일까지 제주도사 진전이 개최되었습니다.

■ **허남정(許南整) 전무이사**는 지난 5월 28일(토) 미국 캘리포니아 유니온유니버시티(CUU) 명예 한의 학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습니다. 1996년 국내 최초로 미국연방한의사(NCCAOM)자격을 획득한 허남정 전무는 그 동안 국내에서 한방과 건강관련 각종 활발한 기고활동등이 인정되어 명예한의학 박사 수여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 금번에 아래 기업이 우리협회 회원으로 신규 가입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호남석유화학(주)**

<http://www.hpc.co.kr>

대표자 : 이영일 대표이사

Tel. 02-829-4114 Fax. 02-843-1010

■ **교세이국제특허정보(주)**

<http://www.kyosei-patent.com>

대표자 : 박남숙 대표

Tel. 031-716-2853 Fax. 031-716-2854

■ 우리협회는 그 동안 쌓아 온 한일간 경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명실상부한 민간경험 채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회원사 확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주변에 있는 좋은 기업을 당협회 **회원사로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02-3014-9877 총무과장)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 유봉우 사무국장 02-3014-9833
bwryu@kjc.or.kr
- 조덕묘 차장 02-3014-9855
dmcho@kjc.or.kr
-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shim@kjc.or.kr

☞ 일한경제협회 회원사 ☜

會社名	姓名·職位
アイリスオーヤマ(株)	大山 健太郎 社長
アサヒビール(株)	瀬戸 雄三 相談役
旭化成(株)	蛭田 史郎 社長
旭化成ライフ&リビング(株)	能村 義廣 社長
旭硝子(株)	門松 正宏 社長
麻生ラファージュセメント(株)	麻生 泰 社長
石川島播磨重工業(株)	中尾 勲 取締役常務執行役員
伊藤忠商事(株)	松本 明久 常務執行役員
伊藤忠丸紅鉄鋼(株)	佐藤 隆治 取締役
ウシオ電機(株)	田中 昭洋 副会長
液化炭酸(株)	逸見 誠 代表取締役
大垣精工(株)	上田 勝弘 代表取締役
オムロン(株)	時田 富士男 執行役員専務
釜屋電機(株)	森田 悦史 代表取締役
川崎重工業(株)	田崎 雅元 社長
(社)関西経済連合会	藤本 明夫 専務理事
関西電力(株)	小林 庄一郎 顧問
(財)機械振興協会	豊田 章一郎 会長
九州電力(株)	大野 茂 相談役
(社)九州・山口経済連合会	鎌田 迪貞 会長
九州旅客鉄道(株)	石原 進 社長
麒麟麦酒(株)	佐藤 安弘 相談役
近畿産業信用組合	青木 定雄 会長
(社)経済同友会	渡辺 正太郎 副代表幹事
三洋電機(株)	桑野 幸徳 社長
新日本製鐵(株)	千速 晃 会長
住商オートリース(株)	加藤 浩則 社長
住友化学(株)	香西 昭夫 相談役
住友商事(株)	秋山 富一 名誉顧問
住友信託銀行(株)	高橋 温 社長
住友電設(株)	塩谷 章 社長
住友不動産(株)	安藤 太郎 取締役相談役
清水建設(株)	野村 哲也 社長
JFE商事(株)	成木 宏雄 社長
(株)シャンソン化粧品	川村 修 社長
セコム(株)	杉町 壽孝 会長
(株)銭高組	大野 皓將 取締役専務執行役員
(株)セブンイレブン・ジャパン	鈴木 敏文 会長
全日本空輸(株)	普勝 清治 最高顧問
双日ホールディングス(株)	西村 英俊 社長
第一生命保険相互会社	斎藤 勝利 社長
大成建設(株)	平島 治 会長
ダイキン工業(株)	井上 礼之 会長
(株)竹中工務店	竹中 統一 社長
太平洋セメント(株)	鮫島 章男 社長
大和証券エスエムビーシー(株)	斎藤 辰栄 社長
中国電力(株)	白倉 茂生 社長
中部電力(株)	川口 文夫 社長
月島機械(株)	田原 龍二 社長
テルモ(株)	和地 孝 会長
(株)電通	成田 豊 最高顧問
(株)デンソー	深谷 紘一 会長
(株)東急エージェンシー	永利 久志 会長
(株)東急ホテルマネジメント	磯崎 浩亮 代表取締役

會社名	姓名·職位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株)	河野 俊二 相談役
(株)東京三菱銀行	高垣 佑 相談役
東京商工会議所	広瀬 一郎 常務理事
東京電力(株)	荒木 浩 顧問
東京貿易(株)	町田 弘 会長
(株)東芝	渡里 杉一郎 相談役
(社)東北経済連合会	幕田 圭一 会長
東北電力(株)	幕田 圭一 社長
東洋紡績(株)	柴田 稔 会長
東レ(株)	前田 勝之助 名誉会長
トヨタ自動車(株)	張 富士夫 社長
豊田通商(株)	武山 栄造 相談役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成田 洋助 専務理事
日鉱金属(株)	遠藤 一郎 顧問
日産自動車(株)	小枝 至 共同会長
日本ガイシ(株)	小原 敏人 相談役
日本銀行	堀井 昭成 国際局長
(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和田 龍幸 事務総長
(株)日本航空	西塚 英一 副社長
(社)日本在外企業協会	宮原 正雄 専務理事
日本商工会議所	篠原 徹 常務理事
日本生命保険相互会社	宇野 郁夫 社長
日本テイラー(株)	松本 雅郎 代表取締役
日本電気(株)	矢野 薫 副社長
(社)日本貿易会	高梨 圭介 専務理事
(株)日本能率協会コンサルティング	秋山 守由 社長
野村證券(株)	古賀 信行 執行役員社長
(株)博報堂DYホールディングス	東海林 隆 会長
(株)日立製作所	庄山 悦彦 社長
日野自動車(株)	二見 富雄 顧問
富士ゼロックス(株)	小林 陽太郎 会長
富士電機ホールディングス(株)	沢 邦彦 社長
北陸電力(株)	山田 圭藏 会長
北海道経済連合会	南山 英雄 会長
北海道電力(株)	近藤 龍夫 社長
(株)ホテルオークラ東京	清水 紘一郎 取締役
松下電器産業(株)	伊勢 富一 役員
(株)丸順	今川 喜章 社長
丸紅(株)	高 捷雄 副社長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株)	齋藤 宏 頭取
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株)	井口 武雄 社長
(株)三井住友銀行	西川 善文 頭取
三井物産(株)	永田 宏 顧問
三菱商事(株)	佐々木 幹夫 会長
三菱重工業(株)	西岡 喬 会長
三菱電機(株)	五月女 英介 国際部長
三菱マテリアル(株)	西川 章 会長
(株)メタルワン	金田 守司 社長
UCC上島珈琲(株)	上島 達司 社長
横河電機(株)	内田 勲 社長
(学)立命館	川本 八郎 理事長
(株)ロッテ	重光 武雄 社長
(株)ワコール	塚本 能交 社長

<2005년 3월 현재>